

시민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할 것

정성주 시장, 2주동안 19개 읍면동 찾아 시민 의견 청취

정성주 김제시장이 2주동안 19개 읍·면·동을 찾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민 소통 열린대화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시민소통·공감의날, 읍면동에서의 간담회, 열린시장실 운영 등 그동안 나아갈 소통의 길을 더하는 순간들이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김제시의 주인은 시민여러분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시민을 위한 행정 등으로 '전북권 4대도시로 응모하는 김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내주신 기대와 응원을 가슴 깊이 새겨 시민의 일상부터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으로 나아갈 김제의 미래까지 소통을 기반으로 멈춤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민 소통 열린 대화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2024년의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과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읍면동 방문 시 실·과·소장(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등)과 시민 건의 사항이 많은 연계기관(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배석해 시민 건의 사항에 대비했다.

또 지난 2023년 주요성과와 2024년 시정계획을 미리 보고해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새로운 의견을 활발하게 교류했다.

첫날 개최된 '김산동 시민 소통 열린 대화'부터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총 약 2,000여명이 열린대화에 참석, 시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건의 사항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정 시장은 주민 현행, 현행의 이야기를 메모하고 경청했다.

▲2023년 주요 성과

시는 지난해 '전북권 4대 도시로 응모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국가예산 1조113억원을 확보하며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했다.

또 (주)R E&I 그리고 미국 MEC사 간 건설장비 1조3,000억원의 수출 업무협약과 6,500억원의 수출 본계약을 체결해 미국 수출시장을 개척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사업에 지정산업단지 내 (주)R E&I와 (주)산이 선정돼 첨단산업의 투자 촉진과 집적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첨단 나노소재 기업인 (주)석경에이티, 배터리 제조업체 (주)알파온 등 미래 성장기업을 유치해 총 838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66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특히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2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2022년도 4등급에 비해 2단계가 상승한 것으로



지난 한해 주요 성과
첨단산업 투자 촉진 토대 마련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행안부 인력 운영 효율화 우수
고향사랑 목표금액 136% 초과

올해 추진 계획

미래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과학기술 집적 첨단 농업 주도
새만금 중심 성장동력 축 삼아
응미하는 해양 항만도시 조성
시민중심 서비스 강화도



성장이 가능한 김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산업성장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과 식품사업을 연계한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등 지정산업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특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특장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한다.

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일자리 종합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축으로 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를 만들고 과학기술을 접목해 첨단 농업을 주도,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농업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기회의 땅인 새만금을 중심으로 김제 미래 100년을 일궈 나갈 성장동력의 축을 삼아 '응미하는 해양 항만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포격있는 문화관광도시', '신뢰받는 시민소통행정'을 펼치기 위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이번 시민과의 소통대화를 시작하기 전 지난해 읍면동을 순회하며 어떠한 말을 주고 받았는지 다시한번 검토하며 그동안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부족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고심했다"면서 "시민여러분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격이 없는 시정, 쌍방향 소통 시정,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직원 모두가 청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룬 값진 성과다.

이올러 조직의 혁신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희생을 감수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인력 운영 효율화 평가에서 전북특자도에서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3억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6억 7,900여만원을 모금해 목표금액의 136%를 초과

달성했으며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유치 활동 등 많은 인원이 김제를 방문해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이외에도 행안부 주관 2023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장관상, 2023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지자체 평가 대상, 2023국가재난관리 유공 장관상 수상 등 44개 분야에서 중앙부처 및 외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김제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2024년 추진 계획

2024년은 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새로운 반환점을 도는해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2024년은 시정 슬로건을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으로 정하고 역점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미래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해 지속

열린의정! 의뭉의회! 임실군의회

